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활성화 연구 : 지적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신준용* 최재원**

본 논문은 지적장애인을 수동적이고 무성(無性)의 존재, 또는 성에 집착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을 고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를 설계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연구를 계획하였다. 지적장애 학생의 성과 관련된 국내 문헌 분석, 설문조사, 관련 종사자 면담 등의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①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 분석, ②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요구, ③ 지적장애 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에 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성교육 요구(내용 및 방법)를 알 수 있었다. 셋째,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 성적 주체자로서 지적장애 학생을 바라보며, 보편적 학습설계(UDL) 이론에 근거하여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경계를 두지 않는 '모든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 성교육의 진보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지적장애 학생, 성 고정관념, 성교육

*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I. 서론

성은 인간의 탄생과 유희 목적에서 떼어낼 수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입 밖으로 꺼내기 조심스러운 단어이다.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성교육이 필요한 시기인 성장기 아동·청소년, 그리고 장애 학생의 특수교육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즉 본 연구의 부제인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대한 욕구가 없을까?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적인 고민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으며, 책임 연구자는 2021학년도 1학기 강남대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 교육’ 수업을 수강하며 지적장애 학생의 성과 결혼에 관한 내용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흥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갖게 되어 본 연구를 계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성(sex)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지적장애인의 성, 결혼, 육아, 데이트, 고백, 데이트 예절, 이별 등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성과 관련된 다방면의 영역을 성교육으로 크게 범주화하고자 한다. 즉, 언제까지고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내용, 낯선 사람이 팔을 잡으면 “안 돼요, 싫어요.” 등의 거부 의사 표현만을 교수하는 성교육은 지적장애인을 무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에서의 변화를 주고자 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 또한 성교육 일부임은 분명하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자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성과 관련한 주체적인 능동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러한 성을 적절하게 표현 및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 독립적인 삶과 더불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구분을 두지 않는 ‘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학습설계(UDL) 이론에 입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적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교육이 아닌 성숙 단계를 거치고 있는 13~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지적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들의 시선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특성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연인과의 상처를 견디고, 연예인을 사모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본 연구에서 희망하는 방향이다. 단, 지적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비장애인이 지적장애 학생을 성적 주체자로서 바라보는 지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성 고정관념의 유무를 조사함으로써, 성 주체자로서 지적장애 학생의 현 실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관념은 논문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 및 지적장애 성인의 성과 결혼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관련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적절한 성적 욕구의 해소 및 표현법들을 연구하고 적용하여 윤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1. 용어의 정의

1) 지적장애 학생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지적장애 학생이란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8세 청소년기 학생을 의미한다. AAIDD의 정의에 의하면 지적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으로, 지적기능성과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양 영역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것이다(AAIDD, 2010; 송준만, 2016에서 재인용).

2) 성 고정관념

사회 구성원은 성별에 따라 인지적·행동적 측면, 성격, 감정 등에 대해 다른 특징을 지닐 것이라는 기대치를 하고 있다. 이를 성 역할(gender role)이라고 하고, 성 역할을 기준으로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성 고정관념이다(송현주, 2021). 이 정의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성 고정관념이란 '장애로 인하여 성 역할 부분에서 편협하게 부여받는 형태 및 가치관'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인들은 정도가 다양하지만,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생식능력과 성에 대한 욕구가 있으므로 성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송준만 외 공저, 2016). 즉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 지적 능력과는 별개로 각자 성에 따라 이차 성징인 신체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따라 지적장애인들에게 숨기기보다는 올바른 성 인식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들은 교육 기회 및 사회활동 부족 등으로 성적 표현이 미숙하고 때로는 부적절한 성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송준만 외, 2016).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로 인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 비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적기 때문에 생활연령에 적합한 사회화가 어렵다. 이러한 사회화의 어려움은 자

연스레 발생하는 성적인 호기심을 표출할 때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적장애인도 이성 관계와 그에 내포된 사랑에 관심이 많으며 결혼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성인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 피임, 배우자 역할, 올바른 성인식 등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송준만 외, 2016).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 학생의 독립적인 삶 유지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인 삶 안에는 결혼 및 이성과의 관계, 주체적인 성 인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요구를 다방면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성교육 내용을 알아보며 장애인을 성적으로 수동적이고 무성(無性)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인식함과 동시에 이에 적절한 교육을 연구하고 제공해 주고자 한다. 또한, 여러 성교육 자료를 토대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고,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 및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론적 내용과 더불어 비장애인들이 가진 지적장애 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토대로 현시점에서의 지적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반응 및 요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적장애 학생의 성 고정관념에 대해 현시점에서 자료 및 설문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시대상을 반영한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둘째, 지적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성교육 요구(내용 및 방법)는 무엇인가?

셋째,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

1) 성교육 실태 :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1) 장애 학생 성교육

본 내용에서는 지적장애 학생(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관련 국내 자료들을 조사해 보았다. 먼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2015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선택교과인 ‘보건 교과’와,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2011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지적장애 성교육 지도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에서의 에듀넷 프로그램을 토대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성 교제 프로그램’ 자료도 검토해 보았다.

① 기본 교육과정 : 보건 교과를 중심으로

보건 과목은 일상생활과 건강 영역, 성과 건강 영역, 안전과 건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 내의 내용 요소들을 학습함으로써 최적의 건강과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시키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이 나이와 발달 단계에 적합한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기본 교육과정(보건)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중 1~3학년	고 1~3학년	
성과 건강	신체적 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학습하여 생명에 관한 소중함을 안다.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생식기 건강관리 임신과 출산	성 욕구 조절 임신과 피임 출산과 산후 관리	찾아보기 실천하기 제시하기 탐색하기 표현하기
	사회적 · 도덕적 성	사회적·도덕적 성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폭력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성 교제 성폭력 이해와 대처	성적 의사 결정권 성폭력 예방과 대처 성매매, 성 상품화	

출처 : 교육부(2018)

② 시·도교육청 자료 : 전라남도 교육청 자료를 중심으로

본 자료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로, 지적장애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적인 삶을 영위하며 올바른 성인 준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자신의 인권적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반영한 자료이다(전라남도 교육청, 2011).

③ 국립특수교육원 : 에듀넷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에듀에이블에서는 인권교육 콘텐츠 일부로 성교육 콘텐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자료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 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자료로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식기 위생관리, 성폭력 유형 및 예방, 음란물에 의한 성 상품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④ 국립특수교육원 :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본 자료는 사회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발달장애인 성인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개발되었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즉,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성을 다루기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성, 이성 교제, 결혼 등을 다룬 프로그램 자료이다.

(2) 비장애 학생 성교육 자료

본 단계에서는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관련 국내 자료들을 조사해 보았다.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의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2015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인 실과, 보건, 기술·가정 교과와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2018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검토하였다.

① 공통 교육과정 : 보건 교과를 중심으로

공통 교육과정에서 성을 주제로 한 내용은 실과, 보건, 기술·가정 교과에 녹아 있다. 실과와 중학교 수준의 기술·가정은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가정생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문제 해결을 실천하고, 그 경험을 통해 기술적 능력을 높여 현재와 미래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과 삶의 기술을 주도적으로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중학교 수준의 ‘보건’ 교과는 건강의 가치를 알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건강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공통 교육과정(보건)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 건강	성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고, 성 문제는 성 가치관 및 성 윤리 의식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청소년의 성적 발달 이성 교제와 성 역할 임신·출산과 피임 음란물과 성 상품화 성폭력·성매매	탐색하기 이해하기 분석하기 전략 수집하기 제시하기 토론하기 모색하기 도출하기 설명하기 적용하기 계획하기

출처 : 교육부(2015)

② 시·도 교육청 자료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표준안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표준안 자료에 의하면, 성교육의 영역은 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처기술, 성 건강, 사회와 문화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경기도교육청, 2018).

중학교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과 성징, 신체 이미지, 성 심리와 정체성, 사랑, 이성 교제, 결혼과 가족관계, 성적 의사결정, 성에 관한 주장과 위기관리, 남녀의 성 인식 차이, 성 욕구 조절, 생식기 건강과 임신, 피임, 성 매개 감염병과 에이즈, 성폭력 예방, 청소년의 임신, 성 상품화, 그리고 성매매 방지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수준에서 ‘성 욕구 조절’, ‘피임’과 ‘청소년의 임신’, ‘성매매 방지법’의 내용이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의 내용이 심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성교육은 삶과 성, 출산과 부모, 자녀 양육, 건전한 이성 교제, 배우자 선택, 성 가치관, 의사소통과 거절 의사 표현, 성 문제 위기관리, 임신, 성욕과 건전한 성 생활, 생식기 질병과 성 매개 감염병, 피임과 인공 임신 중절, 신생아 관리, 데이트 성폭력, 성과 표현, 그리고 성생활과 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성의 내용이 심화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사회문화적 성의 내용이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8).

③ 기타

이 외에도 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EBS, 한국 양성평등진흥원(젠더원), 학생건강정보센터(교육부)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제작한 성교육 자료의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기관마다 성에 대한 주안점이 다른 것으로 보여 자료 제시는 생략하고자 한다.

2) 성교육 요구

(1) 지적장애 학생의 성적 욕구

지적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성 지식에 따라 제한된 성 충동과 흥미를 보이고, 신체 발달이 지체됨에 따라 부적응행동이 야기될 수도 있으나 성적 발달에서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애란, 2000; 송준만, 2016에서 재인용). 단, 개인적인 환경과 특성, 교육적인 환경, 사회적 기대, 태도 등에 성적 발달이 영향을 받으므로 개개인의 성적 흥미와 표현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이현혜, 2003; 송준만, 2016에서 재인용). 미국 지적장애인 협회에서 분류한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 특징과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성적 특징 분류(김재인, 2002; 김정옥, 2003; 임선영, 2003; 김명화, 2004; 임세라, 2006; 유서정, 2007; 박명순, 2008; 이경자, 201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특징이 다를 수 있으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성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성적 특징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도별 성적 특성

분류	성적 특성
경도	지적장애인의 80% 이상이 경도 지적장애인 범주에 속한다. 비장애인과 유사하며 정상적인 심리, 사회, 성적 행동과 유사하다(정진옥, 2001).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욕구로 상대적으로 쉽게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신의 사적, 심리적,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나 일단 자원 활용 방법을 습득한 이후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사회인 대부분과 유사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적응하며 성적 충동이나 자극을 조절한다(유서정, 2007). 성적 욕구를 인식하고 충족하는 다양한 능력과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성교육, 성 상담, 성 치료에 대한 언어적 방법에 반응할 수 있다. 현재의 성교육, 성 상담, 성 치료 방법들로서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달시킬 수 있다.
중등도	이차적인 성적 특성이 지연될 수 있다(김명화, 2004). 성욕과 그것에 대한 권리, 성적 행동의 결과와 성적인 책임감에 대한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 무분별한 자위행위, 비식별 적인 동성이나 이성과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더욱 적절한 적응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성교육, 성 상담의 언어적 방법에 반응할 수 있다.
중도	성적인 충동에 대한 조절이 매우 어렵고 과도한 자위행위가 나타난다. 적응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 행동의 적절한 발달이 부족하다. 관능적/성적 행동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사회적 규칙들, 특히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양한 중복장애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강력한 중단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가 요구된다(유서정, 2007). 집단적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수정의 기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김명화, 2004).
최중도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따라 기증하며 주된 반응이 충동적이다. 적절한 의사소통 체계 또는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적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종종 비위생적인 자위행위가 관찰된다(유서정, 2007). 제한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성적으로 이용당하기 쉬우므로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변화를 주기 위해 행동수정 방법이 필요하다(김명화, 2004).

출처 : 전용호(1991), 최옥순(2000), 임선영(2003), 이경자(2010).

(2) 지적장애 학생의 성 지식 접근의 어려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성 인식에 대해 김영석, 김영걸(2015)은 발달장애인이 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관심은 있지만, 중재 경험이 없어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즉, 성과 관련된 중재 경험이 없는 발달장애인 본인은 성에 대해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은 성에 관해 관심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중재 및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발달장애인 본인은 성에 대해 어려움 느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지적장애 학생들도 성교육 요구가 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이해경, 김혜원, 2009)에 의하면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 사귀기, 성기 관련 지식, 사춘기 신체적 변화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기를 원하였고, 성행위 및 성교, 임신·피임·낙태, 성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학습 욕구가 크지 않았다. 특히 중학생은 성기 관련 내용, 사춘기 신체적 변화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아 보였고, 고등학생은 성기 관련 내용보다 이성 교제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더 가짐과 동시에 중학생에게 언급되지 않은 결혼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김혜원, 2009). 또한, 학부모는 몸과 생식기 관리하기,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성교육 내용으로써 성교육 내용을 요구하기도 했다(차세진, 황순영, 2018). 청결 유지와 성폭력 대응이 곧 성교육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만연한지(김두희, 2017; 차세진, 황순영, 2018에서 재인용), 실제로 지적장애 학생은 그러한 교육을 원하는지는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3) 성 고정관념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의 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사례의 내용을 떠올리거나, 무(無)성의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내용을 토대로 지적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성교육을 하면 오히려 성적 호기심만 커져 문제만 더 생길 것이다.

장애인들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자칫 잘못하면 성교육이 자극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가까운 예로 서울의 모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A 교원의 경우에

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성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성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안 될 때 오히려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전라남도 교육청, 2011), 표현 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선택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무(無)성이거나 지나칠 정도로 성을 즐긴다.

많은 사람이 장애인은 성에 전혀 관심이 없으리라 생각하여 그들의 성적 호기심이나 성 표현에 대한 권리를 무시해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교육하려 하지 않는다(전라남도 교육청, 2011). 또한, 그들에게 욕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굶어 부스럼 만들기’라는 식으로 터부시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미국 지적장애인 협회에서 분류한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 특징과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성적 특징 분류(이경자, 2010)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특징이 다를 수는 있으나, 성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성적 특징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욕구가 있으며, 그들의 욕구를 표출 및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할 뿐이다.

(3) 성교육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장애인의 학습 능력을 의심하여 성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를 ‘치료’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장애를 인정하고 잠재된 능력을 꽃피우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인지능력 및 사회적 경험, 개인적인 특성, 장애의 정도 및 유형 등에 따라 그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전라남도 교육청, 2011). 가정환경, 개인적인 특성, 지적 능력, 적응행동에서의 제한성 등으로 성교육 내용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개인의 특성과 대상자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교육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여 제공해 주면 된다. 즉,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내용 및 방법으로 교수하면 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성 욕구를 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비장애인 대부분은 자신의 성적 충동 및 욕구를 조절·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상황에 맞는 성적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와 교육여건을 받는다. 반면, 지적장애 학생은 비장애인들의 편견, 무시하는 태도, 제한된 환경, 교육 기회 및 사회활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성적 표현이 미숙하고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성행동이 더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다(이현혜, 2003; 송준만, 2016에서 재인용).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성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회가 원치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수용될 수 없는 성적 행동을 발달시킬 위험이 있다. 즉, 이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그들이 지적장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그렇게 방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경자, 2010).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의 장애의 정도 및 특징에 맞는 개별적이고 적합한 성과 관련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설문지와 면담 두 가지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지 참여 인원은 15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 경우 탈락률을 고려해 최소 100명을 지정하였다. 면담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들로 특수교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면담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근무처	경력	성교육 경력
윤○○	여	20대	대졸	중등 특수교육	특수학교	2년	무
이○○	남	30대	대졸	중등 특수교육	특수학교	12년	무
허○	남	40대	대졸	사회복지학	장애인복지관	15년	무
이○○	여	40대	대졸	광고학	주부	-	무

설문 대상자는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학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선정했으며, 면담 참여자는 지적장애 학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전문가 또는 학부모로 선정해 보았다. 연구대상자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지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강남대학교 '에브리타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대학생 연구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모집하고, 이 외의 대상자는 소수의 인원에게 설문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그들의 지인을 조사하는 누적 표본추출을 통해 모집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의 경우 본 연구자가 평소 면식이 있는 특수교육 분야의 관련 종사자들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구두로 연구 동의를 받은 후,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되기 3~7일 전에 연구 설명문, 연구 참여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하나의 연령층이 아닌 2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 성별, 학력, 지적장애인과의 소통 여부¹⁾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면담 대상자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 학생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다.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장애인복지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의 경우 지적장애 학생과 매우 밀접하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직·간접적 경험과 더불어 체험적 사례는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때 매우 좋은 양분이 될 것이다. 또한, 면담 대상으로 지적장애 학생의 '학부모'를 섭외하였는데, 이는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의 가정 내의 교육과도 연계해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실제적인 성교육 활성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반수의 연구 질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된다. 둘째, 연구 참여 의지가 없거나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연구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된다. 셋째, 연구원과 합리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연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연구대상자는 연구에서 제외된다.

1) 지적장애 학생보다 지적장애인으로 범위를 넓혀서 소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질문은 '지적장애인'으로 용어를 잠정적으로 수정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와 개별 면담을 위한 면담 질문지로서, 두 가지의 도구를 동시에 활용하여 상호 보완하였다.

1) 설문지 작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 연구(손순옥, 2012)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비장애인의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 고정관념,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법을 채택하여 ‘Google 설문지’ 양식을 활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성 고정관념 11문항, 성교육 요구 4문항, 개인 소감 1문항을 합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 고정관념과 성교육 요구 영역은 선행 연구(손순옥, 2012)의 설문지 문항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하였고,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지 문항 영역

영역	문항	문항 수
인적 사항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지적장애인과의 소통 여부	4
지적장애 학생의 성에 대한 인식 ²⁾	성적 발달 수준, 성 욕구, 성적 발달 속도, 성 조절 능력, 성적 자극, 성행동, 성행동 통제, 성 고민, 성교육 역효과, 이성 교제, 결혼	11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필요성 ³⁾	중요도, 권리, 필요 범위, 영향력	4
기타	소감 및 하고 싶은 말	1

2) 본 연구 설문 응답자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설문지 소주제 제목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서 ‘지적장애 학생의 성에 대한 인식’으로 잠정적으로 수정하였다.

3)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요구를 조사하는 의도를 반영하여,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요구’를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필요성’으로 잠정적으로 수정하였다.

2) 면담 질문지 작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한용현, 2019)에서 사용된 질적 면담 질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1:1 개별 면담을 위한 반 구조화 형식의 질문지로 개발하였고, 반 구조화 질문지 특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질문 6문항과 응답에 따른 추가 질문을 융통성 있게 혼용하여, 면담 참여자가 자기 생각과 느낌을 최대한 솔직하게 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질문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면담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당일의 기분에 관한 질문과 본인의 인적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질문이 본 면담 질문지의 도입이다. 그 이후 성 고정관념, 성교육 실태, 성교육 요구라는 3가지 쟁점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성 고정관념, 직접 경험한 지적장애 학생의 성과 관련된 행동, 특수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성교육, 지적장애 학생에게 요구되는 성교육 내용 및 방법, 그리고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의 순서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질문들은 구조화된 질문이며, 반 구조화 특성에 따라 참여자 응답에 대한 이유와 부연 설명 등을 요구하는 추가 질문도 덧붙였다.

3) 연구 도구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조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였다. 비록 선행 연구에서 설문 문항들이 변수를 일관성 있게 측정한 것으로 검증이 되었지만, 본 연구는 다른 대상과 조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도 검증 작업을 다시 진행하였다(손순옥, 2012).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으로써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0.626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므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지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교육과 교수 1인에게 지속적인 검수를 받았고, 모든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설문을 시행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조사 도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Linelon, Guba, 1985; 최복천, 김유리 2014에서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자들이 면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면담을 진행하기 전, 제작된 면담 질문지를 재검토하고 추가 질문에 관한 내용과 면담 규칙도 합의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본 연구자들이 녹취 및 녹화 자료를 모두 전사한 뒤 확인하고, 같은 발언에서 상반된 해석 및 의견이 제시됐을 때 면담 참여자에게 발언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였다(최복천, 김유리, 2014).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지적장애 학생이 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이수하고 있는 성교육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지적장애 학생의 성 고정관념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적합한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조사연구이다(이종승, 2011). 이에 관한 연구 절차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절차

1. 지적장애 학생 성교육 활성화 연구(성교육 실태, 성 고정관념, 성교육 요구) : 국내 문헌 조사	
↓	
2-1. 설문조사	2-2. 면담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 고정관념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필요성(요구)	
-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실태
변인(성별, 나이, 직업, 지적장애 관심 정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 성교육 필요성(요구) 인식	1:1 반 구조화 면담을 통한 심층 이해
↓	
수집된 연구자료 분석	
↓	
연구 결과에 합당한 성교육 프로그램 선행 연구 조사 : 국내 문헌 조사	
↓	
지적장애 학생 성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우선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고, 3가지 연구 쟁점에서 더 구체적인 하위 쟁점이 무엇인지 정하기 위해 국내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 절차로써, 우선 성 고정관념과 성교육의 필요성은 전반적인 추세와 비장애인의 성별, 연령, 학력, 지적장애인과의 소통 여부 4가지의 변인에 따른 추세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계획하였다.

면담 방식은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들이 면담 질문을 합의한 뒤, 개인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특수교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학부모 1명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화 및 녹취하고, 참여자는 익명화하고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보관하였다.

설문 응답과 면담 참여 기간은 모두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하여 각각 2021년 10월 20일, 10월 24일로 마무리하였다.

4. 자료 분석

Google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자동으로 데이터로 추출되었다. 문항별 응답 수치와 변인에 따른 응답 수치를 분류하여 확인하였고,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항별 응답 수치는 응답자의 전반적인 응답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변인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자의 빈도를 분석하고,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변인에 따른 응답 수치는 통계 분석에 들어가기 전, 변인 별로 존재하는 표본 집단이 정규분포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4가지 변인 중 연령과 학력의 일부 표본 집단이 30명을 초과하지 못하여 정규성을 띠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령과 학력은 변인에서 제외하고, 정규성을 만족한 성별과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만 변인으로 설정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설문지 변인 분석

영역		연구 변인		분석 방법
		독립변인	종속변인	
1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은 어느 정도인가?	구분 없음		빈도분석, 기술통계
2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성교육 요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구분 없음		빈도분석, 기술통계
3	비장애인의 성별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성별	장애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	독립표본 t 검정
4	비장애인의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에 따라 성교육 요구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	장애인의 성교육 요구	독립표본 t 검정

또한 녹음 및 녹화된 면담 자료는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을 일부 활용하여 다음 과정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Bogdan, Biklen, 1982; 전혜인, 2007; 정유진, 전혜인, 2015에서 재인용).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기록한다. 둘째, 기록된 내용에서 연구 문제에 유의미하게 연관된 구와 절을 추출한다. 셋째, 추출된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고, 각 진술이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함유한 내용에 따라 진술을 범주화한다.

IV. 연구 결과

1. 성교육 내용

1) 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을 토대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를 비교 및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장애 학생의 성교육 내용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도덕적 성 및 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성교육을 다루고 있었으며,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내용에는 생물학적 성과 도덕적 성과 더불어 성매매, 에이즈 등의 최신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에서의 공통점으로는 과거보다 최근(5년 이내)에 가까워질수록 생물학적 내용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이성 교제, 결혼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려는 내용이 보였고, 차이점은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에서는 사회·문화적 접근으로서의 이성 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와 비교해 현저히 적었다.

2) 면담

면담은 총 5문항 반 구조화 면담지를 활용해 진행하였고, 사전에 면담지를 제공해 주었다. 면담 참여자는 2명의 특수교사, 1명의 사회복지사, 1명의 지적장애 학생의 학부모 총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 성교육 필요성, 사례 중심의 성 행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식적인 문항 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도 포함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문항별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수학교 및 관련 기관에서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문항은 특수학교 및 관련 기관(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에 대한 문항이다. 본 문항을 토대로 얻게 된 결과는 답변 전반적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의 횟수 및 내용적인 부분에서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와 반대로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AAC 접근을 강조한 성교육이 주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접적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주었고, 연구 참여자 D의 경우 과거와 비교해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많이 발전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올해 지금 9월이잖아요? 아니, 10월이죠. 지금까지 이번 연도에 한 번 했거든요? 이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전공과 담임을 하고 있는데, 성인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 중 하나가 전 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중학교 담임을 할 때도 항상 학교는 뭐 형식적인 성교육... 보고를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연 몇 회에 이제 필수로 실시를 해야 하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기록상의 성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문서상의 성교육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사들도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뭔가 자료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저희는 보통 성교육 전문 강사가 와서 그때 이제 몇 시간 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 하면 좋은데, 그게 꾸준히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A)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교육과정에 보면 성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많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학생별로 개개인의 특성이 크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가르친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싶는데 알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는 이런 복지기관에서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해야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옳은 건가? 라는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건 많지는 않지만... 특수학교든 장애인 복지관이든 장애 유형에 맞추어서 성교육을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AAC같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연구 참여자 C)

교육 주제가 예전에 비해서 성 관련해서 그래도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제가 직접 그 교육을 들은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교육의 주제가, 예를 들어 뭐 자립 관련된 거 뭐 관련된 거 어? 성 관련된 게 요즘에는 그래도 좀 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쪽에 이런 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쪽에도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연구 참여자 D)

2. 성교육 요구

1) 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요구 실태를 확인하였다. 미국 지적 장애인 협회에서 분류한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 특징과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성적 특징 분류(김재인, 2002; 김정옥, 2003; 임선영, 2003; 김명화, 2004; 임세라, 2006; 유서정, 2007; 박명순, 2008; 이정자, 201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특징이 다를 수 있으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성적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성적 특징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영석, 김영걸(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에 관해 관심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중재 및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발달장애인 본인은 성에 대해 어려움 느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고, 또 다른 선행 연구(이해경, 김혜원, 2009)에 의하면 지적장애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 사귀기, 성기 관련 지식, 사춘기 신체적 변화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누적 표본추출을 통해 모집된 1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 중 유효 응답자 154명의 응답을 데이터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 고

정관념, 성교육 요구를 쟁점으로, 응답자의 전반적인 생각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는 정규성 검정에 따라 성별,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만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지적장애인의 성교육 요구에 관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설문조사 응답 결과(성교육 요구)

영역	문항		평균	표준 편차 (SD)	빈도(N)
성 교육 필요성	12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은 중요하다.	3.87	.356	154
	13	지적장애 학생은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3.90	.409	154
	14	성교육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좋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그들 자신들을 좋아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3.78	.527	154
	15	성교육이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준다.	3.63	.646	154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3.79점으로 나와, 그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문항 모두 3.5점 이상의 평균을 보였고, 문항별 부정적인 응답도 각각 0.6%, 2.5%, 3.8%, 5.1%에 불과했다. 이는 비장애인이 느끼는 전반적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성교육 요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장애인의 성별과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에 따라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필요성 정도를 비교하였다. 우선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모두 전반적으로 지적장애 학생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성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4문항 중 3문항(성교육의 중요성, 성교육 내용 및 방법, 성교육 영향)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설문조사 응답 결과

종속변인			독립 변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SD)	t 검정	
							t	평균차이
성 교육 필요성	12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성 교육은 중요하다.	남자	42	3.74	0.497	-2.245*	-0.182
			여자	112	3.92	0.273		
	14	성교육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좋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그들 자신들을 좋아하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 되어야 한다.	남자	42	3.60	0.734	-2.114*	-0.253
			여자	112	3.85	0.407		
	15	성교육이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준다.	남자	42	3.31	0.897	-3.028**	-0.440
			여자	112	3.75	0.475		

* $p < .05$, ** $p < .01$, *** $p < .001$

그리고 지적장애인과 소통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평균은 수치가 거의 같았으며, 4문항 모두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면담

(1)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특별하게 요구되는 성교육 내용이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본 문항은 본 연구의 부제로 좁힌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특별하게 요구되는 성교육의 내용 및 방법적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질문이다. 본 문항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항이므로, 위 내용과는 다르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 참여자 A의 경우 생물학적 성교육의 내용보다는 사회·규범적인 접근으로서 ‘올바른 이성 교제’에 대한 내용을 성교육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연구 참여자 B의 경우 대상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정도까지의 성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인지능력의 제한성이 있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교수 전달 방법(ex : AAC)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연구 참여자 D의 경우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한 성교육은 개별교수 또는 소그룹 형태로의 교수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는 첫 번째로 올바른 이성 교제 방법에 대해 이제 성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특수학교에 있다 보니까 특이한 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갑자기 세 명에서 사권다거나…. 이제 여자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다른 여자 친구를 사귄 거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한 명만 사귀어야 한다. 왜 한 명만 사귀어야 되냐…. 라는 몇 명을 사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왜 한 명을 사귀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올바른 이성 교제 방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좋으면 사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성교육 중 하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애 학생들…. 지적장애 학생들 대부분 관심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에 원가 피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가 올바른 관심과 자기한테 좋지 않은 관심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연구 참여자 A)

지적장애라는 범주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학생 간의 관계를 다 조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면담? 학부모 면담? 학생 면담? 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별화된 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 아까 그 연구자가 얘기해준 것처럼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웠던 성적 호기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까지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지금 제 상황으로서는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일단은 먼저 아무래도 사람마다 이해 수준이 그 나이 때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을 만들어 내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내고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근래에 그래서 가장 많이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들이 대부분 AAC를 활용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파트에서 모든 설명 자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연구 참여자 C)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지지만 1:1 교육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은 게 근데 이것은 왜 일대일 교육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은 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동은 성은 성, 예를 들어 자조는 자조, 학습은 학습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만 따로 딱 교육을 한다? 그거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싶은 거죠 (.....) 적어도 뭐 그룹핑을 해 가지고 한 네 명 정도 그룹핑을 해서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이 사람들이 하면은 서로의 경험도 얘기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형식이라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연구 참여자 D)

(2)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성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본 문항은 확산적 발문 유형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해 각기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각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먼저,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화 교육(IEP)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와 연계해 학교와 일상생활과의 연계된 성교육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답변은 연구 참여자 A의 경우 지적장애 학생의 인지능력과는 별개로 ‘성인지’ 능력에 맞추어진 교육 제공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조금은 더 성인 지적장애인에 맞추어진 내용으로, 지적장애인의 성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순화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학부모 참여자의 경우 지적장애 학생 부모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서 계속해서 유기적인 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성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다.

저는 바람직한 방향의 성교육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특수교육의 꽃이라고 하는 게 개별화 교육이잖아요? 학생들이 수준이 정말 다 다르고... 저희 반만 해도 다 다른데 인지능력이 높다고 해서 성인지 수준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수준에 따른 성교육도 개별화 성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학생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이 뭔지 생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성인지 수준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우선 하고,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게 뭔지 이제 요구 수준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은 뭔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A)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성교육이지 않을까... 어... 오늘 성교육할 거야 이런 성교육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성간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자연스러운 성교육과 에티켓? 이런 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연구 참여자 B)

이건 장애나 비장애와 상관없이 성에 대해서 어떤 그 관심, 호기심이 높아질 때가 분명히 있는데... 특히 사춘기 때나 성장기가 많이 발달될 때가 그런데... 이때 이거를 “하지 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란 것을... 이거는 장애나 비장애나 똑같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방법적으로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이나 방법적으로 다를 뿐이지 그 방향성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특히 지적장애인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표출되는 욕구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것들로 받아들이도록 얘기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연구 참여자 C)

네 그냥 그거(질문 4에 대한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개별화면 더 좋을 거고 그게 어렵다면 그룹핑을 해서 한 네 명 정도의 소수 그룹핑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회차를 늘려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루퍼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실제 사례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 그루퍼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키라고 한다면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다가올 성 문제나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부모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강사일 것 같아요. 강사가 그야말로 전문 강사가 아니라 선배 장애 부모, 예를 들어 강사가 뭐 라이선스만 있는 그런 사람한테만 듣는 거보다는 이미 성인기를 지난 장애 부모, 그래서 성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해결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랑 함께 하면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 참여자 D)

3. 성 고정관념

1) 문헌 분석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한 성교육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먼저, “성교육을 하면 오히려 성적 호기심만 커져 문제만 더 생길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성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성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안 될 때 오히려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전라남도 교육청, 2011), “성 욕구를 조절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지적장애 학생은 비장애인들의 편견, 무시하는 태도, 제한된 환경, 교육 기회 및 사회활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성적 표현이 미숙하고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성행동이 더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다(이현혜, 2003; 송준만, 2016에서 재인용).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성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회가 원치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수용될 수 없는 성적 행동을 발달시킬 위험이 있다. 즉, 이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그들이 지적장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그렇게 방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경자, 2010).

2)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설문조사 응답 결과(성 고정관념)

영역	문항		평균	표준 편차 (SD)	빈도(N)
성 인식	1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해서 어린아이 수준일 것이다.	2.50	.931	154
	2	지적장애 학생은 성적 느낌과 욕구 등을 경험하지 않는다.	1.33	.637	154
	3	지적장애 학생은 성적 발달이 늦을 것이다.	1.82	.882	154
	4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한 조절 능력이 없다.	2.50	.938	154
	5	지적장애 학생은 비장애인보다 성적으로 더 쉽게 자극을 받는다.	2.15	.913	154
	6	지적장애 학생은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행동이 더 많을 것이다.	2.19	.929	154
	7	지적장애 학생의 성행동은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2.03	.918	154
	8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대한 고민이 없을 것이다.	1.45	.637	154
	9	지적장애 학생은 성을 교육하면 오히려 성에 집착할 것이다.	1.59	.789	154
	10	지적장애 학생의 이성 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0	.706	154
	11	지적장애 학생이 성인기에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81	.861	154

전체 평균은 1.91점으로, 성 고정관념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해서 어린아이 수준일 것이다.”에 대한 질문에서 약 50.6%는 긍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을, 49.4%는 부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하였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한 조절 능력이 없다.”에 대한 질문에서 약 52.6%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긍정적인 응답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록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은 전반적으로 낮을지라도, 일부 고정관념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장애인의 성별과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에 따라 성 고정관념 정도를 비교하였다. 성 고정관념 측면에서 남성 집단은 2문항(성 조절 능력, 성적 자극)에서 고정관념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집단은 9문항(성인지 수준, 성적 욕구 경험, 성적 발달, 성적 행동, 성행동 통제, 성 고민, 성교육 효과, 이성 교제, 결혼)에서 고정관념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교육 효과와 이성 교제 문항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집단

모두 장애인에 대한 성 고정관념 정도는 낮지만,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 효과와 이성 교제에 대한 여성 집단의 성 고정관념 정도가 더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표 11>은 이성 교제 문항에 관한 결과이다.

<표 11> 성별에 따른 설문조사 응답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SD)	t 검정	
							t	평균 차이
성 인식	10	지적장애 학생의 이성 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	42	2.00	0.765	3.319**	0.411
			여자	112	1.59	0.651		

* $p < .05$, ** $p < .01$, *** $p < .001$

끝으로, 비장애인의 지적장애인 소통 여부에 따라 비교한, 성 고정관념 측면에서 지적장애인과 소통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5문항(성적 욕구 경험, 성적 발달, 성교육 효과, 이성 교제, 결혼)이 고정관념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장애인과 소통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6문항(성 인지 수준, 성 조절 능력, 성적 자극, 성적 행동, 성행동 통제, 성 고민)이 고정관념의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문항별 평균 차이는 최소 약 0.037부터 최대 0.161 까지 전반적으로 근소하고, 그 차이 또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면담

(1)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성과 관련한 고정관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 연구의 면담에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지적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이러한 고정관념은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다양한 답변 중에서 지적장애인의 ‘욕구’, ‘욕망’에 관한 내용이 대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중에서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무성(無性)이거나 성에 관해 집착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제 면담의 핵심적인 답변은 아래와 같다.

어... 저는 이거는 정반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제 욕구를 참지 못한다는 관념? 뭔가 고정관념을 많이 봤어요. 장애인들은 성적인 욕구를 잘 참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많이 들었었고, 그 반대로는 이제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학생들이 교사나 이제 다른 보조 인력, 교육공무직한테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은 모르고 그랬다, 의도가 없이 행동한 것이다, 그리고 저희 애들은 아직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A)

우리 장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똑같은 발달과정... 발달과 성장을 하는 데 장애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성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같지만, 질문하고 표현하는 부분을 몰라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은 성적 호기심이나 아니면 관심이 없다라고, 관심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장애 교육이 중요한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출발점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B)

우선은 장애 유형에 따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특히 비장애인 분들이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쪽에서의 관계를 보면 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또는 교육이 조금 어렵다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쪽으로 관념이 있어 보였었구요, 뇌 병변 장애 쪽으로 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성에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나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어렵다, 못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C)

굳이 성과 관련하지 않아도 사실은 저도 저희 아들을 키우기 전에는 분명히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고정관념 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틀이나 생각은 그게 가장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로는 그냥 '관심 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욕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할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D)

(2) 지적장애 학생이 보인 행동들 중 성(性)과 관련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행동이었나요?

본 문항은 지적장애 학생의 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 문항이다. 각각의 지적장애 학생들의 장애의 정도, 개인적인 특성, 가족 환경 등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지적장애 학생의 보편적인 성과 관련된 행동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4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합의된 보편적인 내용은 지적장애 학생이 성과 관련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여기서 연구 참여자 A의 경우는 어느 정도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본다). 여기서 적절한 대처란 성과 관련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반응하고, 당사자 학생에게 적절하게 명시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급급하게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동을 보았어도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성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시켜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큰 의의가 있는 면담 문항이었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가 이제 작년에 말았던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 내에 물체에, 모서리에 자위를 하는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말로도 자위하고 싶다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말기, 말은 해 작년에 보건실에 가서 자위를 해주게끔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실에 가자고 저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위 행동은 집에서 해야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항상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혼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계속 보건실에서 했던 게 학습이 되어가지고 계속 보건실에 가자고 하거나, 그 모서리만 보면 이제 여자,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게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연구 참여자 A)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많은 학생들…. 보편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선은 얘기를 할 때 선생님들의 가슴 부위를 치는 학생이 있었어요. 남녀 구별 없어요. 가슴을 치는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 친구가 진짜 알고 치는지 모르고 치는지….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모르고 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신체 위치에서 칠 수 있는 가장 편한 부분을 쳤는데, 그 부분이 뭐 남자 선생님의 가슴, 여자 선생님의 가슴 위치가 되는 그런…. 그니까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었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의도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였고….

(연구 참여자 B)

보통 장애인 쪽에서 오시는 지적장애인 분들은 대부분 중증이시다 보니까, 본인의 행동 자체가 성적인 행동 자체가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욕망이나 욕구는 있으신데, 그게 사회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이 없으셔서 구분을 좀 못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한다. 보다는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시다 보니까 이제 돌발적으로 나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행동수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주간 보호 같은 곳에서의 발달장애나 훈련 시설도 마찬가지구요. 청소년 쪽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C)

얘기를 들은 것만 있어요. 저희 학교가 이제 대안학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년에 한 명씩 장애아동이 있어요. 지금은 졸업하고 중등 간 친구 중에서 그 친구가 6학년 때 이제 집에서도 이제 자위를 하고 발기가 되고 했던 친구인 거죠 남자 친구였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욕구가 생겼을 때 선생님이 '이리 와, 이리 와' 해가지고 여기 친구들 있는데서 이러면 안 되고 '자 이리 와' 하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다 아니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줬다. 뭐 그 비슷한 얘기였어요. 지금은 현재는 중2이에요. 지금은 중2고, 이 친구가 우리 학교 6학년 때, 이 엄마한테 들은 거죠. 아! 같은 반은 아니었죠. 반 안에서 아마 친구들이 좀 몇 명, 그러니까 다 있지는 않고 몇 명 있는 상황에서 아마 자기 욕구가 일어났는데 근데 애가 다른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그다음 상황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눈치를 채고 오 좀 장소를 옮겨줬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D)

4. 프로그램 제시 :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역 내에 12개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신체, 이차 성징, 신체 청결 기술, 올바른 의사결정, 효과적인 자기주장, 거부하는 기술, 성적 행동 및 책임, 이성 교제, 대중매체, 음란물, 임신과 태아 성장, 출산과 육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17회기의 과정으로써 특히 지적장애 학생이 겪게 될 사회문화적 성 요소를 교육에 반영하여 자기결정과 선택, 관계 영역은 더 높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은 아래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성교육 프로그램

회기	영역	주제	주요 내용
1	인간 발달	신체	신체 발달의 특징 알기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분하기 성과 관련 기관 신체 부위 알기
2	건강한 신체	이차 성징 (여)	이차 성징의 의미 알기(사춘기, 변화의 의미) 신체 변화 알기(목소리, 체모, 가슴, 엉덩이, 속옷, 생리 생리대) 심리변화(독립심, 성적 욕구, 불안, 우울)
3		이차 성징 (남)	이차 성징의 의미(사춘기, 변화의 의미) 신체 변화(목소리, 체모, 면도, 생식기, 속옷, 발기, 자위) 심리변화(독립심, 성적 욕구, 불안, 우울)
4	청결 기술	신체 청결 기술	청결의 이유 청결 기술(손, 얼굴, 이, 머리카락, 몸, 생식기, 질병)
5	자기 결정과 선택	올바른 의사결정	의사결정 단계 올바른 의사 결정 과정 표현 좋은 관심과 싫은 관심 구분하기 불법적인 성 행동 구분하기
6		효과적인 자기주장	상황에 대한 반응과 표현 반응 표현의 분류 및 효과적인 표현의 결정 자기주장 표현의 연습
7		거부하는 기술	위험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주는 상황과 그에 대한 행동 “싫다”라고 거부하는 연습 거부하는 과정의 표현

회기	영역	주제	주요 내용
8	관계	성적 행동 및 책임	성적 권리와 책임(1) 신체 접촉의 의미 알기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콘돔 구입처와 올바른 사용 방법 알기 - 공간 구분하기
9			성적 권리와 책임(2) 성적절제, 경계 범위 설정하기 성관계와 임신의 관계 알기 피임의 의미와 방법 알기
10			- (남) 콘돔 구입처와 올바른 사용 방법 알기 - (여) 피임약 구입처와 복용 방법 알기 성병에 대해 알기
11		이성 교제	만남 특별한 느낌 고백
12			데이트 즐기기 데이트 매너 데이트 공개 데이트 스킨십 일상적 연애 이벤트
13			갈등 다루기 이별과 마음 정리 새로운 만남
14	사회적 환경	대중매체	대중매체를 통한 불건전한 성 표현이 미치는 영향 우리 주위의 옳지 않은 성문화에 대처하는 방법
15		음란물	음란물의 사례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 음란물에 대처하는 방법
16	임신과 출산	임신과 태아 성장	건강한 임신 준비 태아 성장 관리 건강한 임신 관리
17		출산과 육아	건강한 출산 준비 출산 과정 산후 관리 출생 신고 100일까지의 육아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자료의 공통점으로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인 성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으나, 장애 학생 성교육 자료에는 생물학적 성과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비장애 학생 성교육 자료에는 이와 더불어 에이즈, 성병, 음란물 등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교육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차후 표준 성교육 자료를 개발할 때는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성교육 자료에서 내용의 격차를 줄이고 보편적 학습설계(UDL) 접근으로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성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단,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따라 교수 매체 및 교육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성교육 요구(내용 및 방법)를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이경자, 2010)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성과 관련된 특징이 다를 수는 있으나, 성과 관련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다른 선행 연구(이해경, 김혜원, 2009)에 따르면 그들 또한 분명 성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배우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내용은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이 아닌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적장애 학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들과의 면담을 통해 1:1 교육, 더봄 학생 프로그램 활성화, 학부모 역량 강화, 성인지 수준 파악, 요구 수준 파악, 좋은 관심과 싫은 관심 분별하기, 일반화 전략,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의 교육 허용 등의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생물학적 성(sexual education)이 아닌, 사회적 성의 내용으로 성교육을 다루어야 한다. 단, 이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내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셋째,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성 고정관념의 내용과 그것이 잘못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문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해서 어리니 수준일 것이다.”에 대한 질문에서 약 50.6%는 긍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을, 49.4%는 부정적인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했고, “지적장애 학생은 성에 관한 조절 능력이 없다.”에 대한 질문에서 약 52.6%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여, 긍정적인 응답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외에도, 지적장애 학생과 관련 있는 대상으로 진행된 면담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이 접촉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욕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할 것 같아요.” 등의

응답을 토대로 고정관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여러 연구 방법들을 토대로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잘못된 성 고정관념은 아직 존재하고 있으므로 활발한 성을 주제로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논의

본 연구에서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의 성교육 내용을 실질적으로 같게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학습설계(UDL)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편적 학습설계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점이 필요하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의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따라 교수 매체 및 교육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성교육의 방법 측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적장애 학생 본인이 성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기를 원하고, 그 내용은 생물학적인 부분이 아닌 대인 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부분이다. 이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성과 관련된 특징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성의 내용을 어떻게 지적장애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지, 그리고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의 내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인의 성 고정관념은 적은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적장애 학생의 성 인지 수준과 성 조절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장애 학생의 스킨십, 성 욕구 유무에 대한 사실도 고전적이지만, 아직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성 고정관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노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3.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지적장애 학생에게 개별화된 성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본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별화된 성교육이란, 앞서 제시된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인지능력, 생활연령, 적응 능력, 환경, 행동 특성, 장애 특성, 학생의 요구 수준, 현행 수준, 인과관계의 이해 여부 등과 더불어 ‘성인지 수준’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개별화 교육을 성교육에 접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화 성교육의

법제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에서도 사회·문화적인 최신 경향을 반영해야 한다. 특수교육에서 가장 강조하고, 당사자인 지적장애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은 ‘독립’이다. 즉, 지적장애 학생이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물학적 성과 성폭력 예방에만 주안점을 두어 성교육을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성, 즉 도덕적이고 사회 규범, 대인 관계, 이성 교제, 데이트,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내용과 더불어 피임 방법, 올바른 자위 및 관계 방법, 관련 예의, 성병, 에이즈 등과 같이 실제적인 내용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교육 활성화를 더 촉진하기 위해, 장애 학생이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통합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 측면에서 의견을 덧붙이고 싶다. 지적장애 학생이 원하는 바가 사회적 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그 사회에 부딪히는 것만큼 빠르고 바람직한 교육 방법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통합 환경이 보장되어 마련된 환경에 지적장애 학생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성 고정관념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장애 학생의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즉, 지적장애 학생 부모를 ‘성교육 강사’로서 역량을 기른다는 것을 말한다. 장애 학생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일반화다. 학교와 가정과 분리된 교육이 아닌 ‘가정과의 연계된 교육’이 일반화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량을 기른다면 지적장애 학생의 성교육은 매우 효과가 좋을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장애 학생에게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 동성애, 이성애 등과 같은 젠더교육이 필요하다. 지적장애 학생은 자신의 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 즉, 장애 학생이기에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교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인 주체자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지적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학생 그리고 비장애 학생에게도 매우 필요한 요소이므로, 실제 성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다. 그저 장애라는 특성을 보유한 같은 구성원일 뿐이다. 즉, 장애인이 성과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에서 배제될 필요도 없고, 배제될 수도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장애인이 ‘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피해자가 아닌, 성적 주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를 다시 재해석하고자 한다.

4.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비확률표집 방법인 누적 표본추출을 통해 모집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때 재정, 시간 등이 한정적이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고 제언에 그쳤다. 셋째, 지적장애인 섭외의 어려움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보지 못해, 실제적인 내용을 연구에 담지 못했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18). 학교 성교육 표준안(고등학교). pp. 1-3.
- 경기도교육청. (2018). 학교 성교육 표준안(중학교). pp. 1-2.
- 교육부. (2015).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부. (2015). 기본 교육과정. 교육부. pp. 416-420.
- 교육부. (2015).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pp. 524-527.
- 국립특수교육원. (2016).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국립특수교육원, p.107.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 에이블. 인권교육 콘텐츠. (2021. 09. 19.). <http://www.nise.go.kr/sub/info.do?m=020106&s=eduable&page=0401#tab13>.
- 김영숙, 김영걸. (2015). 발달장애인의 성인식과 성 태도에 따른 성교육지원 연구. 지적장애연구, 17(3), pp. 161-184.
- 김주연, 김유리, 박은혜, 정지훈. (2020). 자기결정 구성요소를 적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도 지적장애인의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4(4), pp. 230-232.
- 김혜원, 이해경. (2009). 교사들이 지각한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성교육 요구와 성행동 경험: 초, 중, 고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4), pp. 41-42.
- 손순옥. (2012).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인식연구: 경상북도 서북부지역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5-69.
- 송준만, 강경숙, 김미선, 김은주. (2016). 지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pp. 28-394.
- 송현주. (2021. 09. 19). 심리학 용어사전. <https://www.koreanpsychology.or.kr/user/index.asp>.
- 이경자. (2010). 지적장애인의 성문제와 성교육적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 4, pp. 185-190.
- 이종승. (2011).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pp. 290-291.
- 전라남도 교육청. (2011). 지적 장애 학생을 위한 성교육 지도자료. 학교보건, No 4, pp. 3-16.
- 정유진, 전해인. (2015). 발달장애학생의 성문제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 특수교육, 14(1), pp. 340-341.
- 조연순, 김정효, 이경순, 우재경. (2001). 초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14(2), pp. 225-226.

- 차세진, 황순영. (2018). 발달장애학생 성교육 실태 및 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20(1), pp. 109-133.
- 차세진, 황순영. (2021).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모듈형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적장애연구, 23(1), pp. 48-52.
- 최복천, 김유리. (2014).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및 지원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부모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3), pp. 74-75.
- 한용현. (2019). 발달장애인 성행동에 관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식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2.

원고접수 : 2021. 11. 13.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	------------------------	----------------------

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ex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hin Jun yong*·Choi Jae won**

This thesis was designed to examine and correct the society's prejudice that views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passive and asexual or sexually obsessive. This study was planned to suggest a plan to revitalize sex education for students. Focusing on research methods such as domestic literature analysis, survey, and interview with related workers related to the sexuality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①Analysis of sex education data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students, ②Requests for sex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③Sexuality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stereotype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ex education data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students. Second, it was possible to find out the needs (contents and methods) of sex education suitable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ir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gender stereotypes of non-disabled students with respect to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a plan to revitalize sex education centered on 'all students' that does not set boundaries betwee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students based on the universal learning design (UDL) theory, looking at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a sexual subject. there is Through various studies including th

* Department undergraduate, Secondary Special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 Department of Education undergraduate, Kangnam University

is study, we expect the progress of sexu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eywords : intellectually disabled students, gender stereotypes, sex education